

미술 남정덕 선생님의 ★ ★ 합격 비법



미술 남정덕

2025학년도
기출 적중 내역

선생님을 향한 레이스⁼³₌₃
미술 남정덕 선생님과
함께라면 단기 합격할 수 있어요.

**미술 남정덕 선생님 카페에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선생님 자료 더보기▼

- 1) 희소/샘플러스 : <https://www.ssamplus.com//>
- 2) 다음 카페 : <https://cafe.daum.net/art-nahmmisul>

2025학년도 1차 미술 수강 후기

■ 타 강사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딱딱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단어들의 조화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하나의 스토리를 듣는듯하여 내가 답안을 완성하기 전에 이해 하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습니다! -ID: hana6***-

■ 한 강사로 정착했다가 올해 좀 새롭게 접근해보고 싶어서 올해 처음 임용 강의를 시작하신 남정덕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어요. 초수가 아니라서 심화 테마파크부터 시작했어요. 이 강의를 듣고 좋았던 점은 우선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보다 좀더 심화된, 깊이가 있고 생소한 용어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본서도 보지만 이 강의는 프린트물로 진행되는 강의인데 프린트물이 용어사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과 그걸 바탕으로 형성평가,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점검 포인트, 추가자료 등 알차게 되어있어서 기본이론에서 좀더 확장시켜 공부하기 좋았습니다. 남정덕 선생님 강의의 장점은 올해 처음 임용판에 들어오셨긴하지만 이미 교재를 출판해 놓으신 상태이고 임용 관련해서 특강, 컨설팅을 하셨던 분이구나 보니 누구보다 임용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시고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다양한 비유나 청킹 등을 활용해주셔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물로 수업을 하되 다시 기본서를 한번씩 훑어 주셔서 이 파트엔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출제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셔서 효율적인 공부가 될수 있도록 하셨어요. 공부를 하다보면 막막해질때가 있는데 강의 중간중간 이 시기에 해야할 공부나 암기 방법 같은 팁을 알려주셔서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67월에 테마파크 심화를 통해 뜬구름 같던 기본이론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로 중요내용과 생소한 용어도 기입 대비로 한번씩 보게 되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달동안 감사했어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ID: jjsh***-



■ 서양미술사 스토리를 재미있고 자세히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경지식을 많이 알려주신 점이 몰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포로 깨우치는 서양미술 특강 수강 필수!! 추천!! 합니다 ^__^ -ID: hana5***-

■ 22년 교육과정에 대한 포인트 및 변화, 주요 키워드에 대해 쉽게 해설 해 주셨습니다. 항상 자세한 설명 및 선생님들을 고려한 세심함이 느껴지는 강의입니다. 교육과정이 막연하고 미학 및 2차 수업 실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께 강추합니다. -ID: action***-

■ 믿고 듣는 남정덕 선생님 서양미술사. 이해 썩썩 흐름파악이 쉬워서 암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큰 즐거움 먼저 이해하게 해 주시고, 요점은 물론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추가 강의자료까지..감사드립니다. 최고 -ID: malga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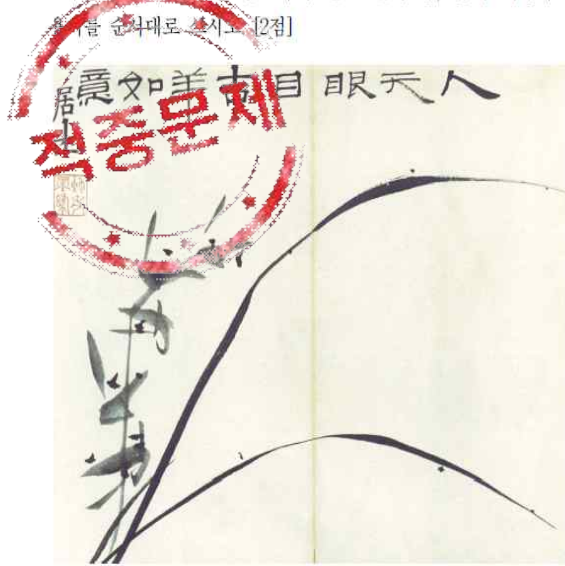
■ 평소 알던 개념에서 더 심화적으로 연계하는 방법과 이해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고 스스로 개념을 이해할 수있도록 하는 수업 구성이 좋았습니다 -ID: ghkdud4***-

■ 학부 때 디자인 수업을 들긴 했지만 2학년때라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기도 했고 처음 나오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이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 안되는 부분들도 많이 이해가 되었고, 시대순서별로 상세하게 강의해주셔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 -ID: goeun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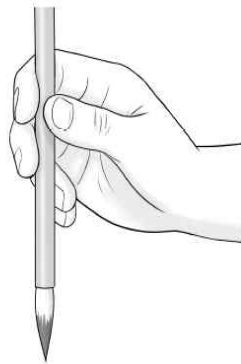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2	강좌정보	8-10월 모의고사						
<p>2.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가)</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나)</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가)와 (나)의 드로잉 재료로 사용된 (㉠)은/는 포도나무나 버드나무 등의 가지를 높은 온도의 가마에서 구워 만든다. (㉡)은/는 잡는 각도에 따라 획의 굵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 드로잉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작가의 감정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또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들을</p> </div>		<p>4주차 전공 B3번 목탄에 관한 문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어진 용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width: 15%;">선정 도구</td> <td>목탄, 마카펜</td> </tr> <tr> <td>목탄</td> <td> 1.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든 숯 2. 입자가 거칠지만 연필 등장 이전까지 스케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음 [부재료] • ㉠퍼티, ㉡찰필 등 </td> </tr> </tbody> </table> <p>해설내용 - 나무를 그을려서 만든 드로잉 용구가 바로 목탄. 명암과 획의 굵기가 달라지는데 이를 지우거나 번지는 효과를 위해 퍼티를 사용</p>		주어진 용어		선정 도구	목탄, 마카펜	목탄	1.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든 숯 2. 입자가 거칠지만 연필 등장 이전까지 스케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음 [부재료] • ㉠퍼티, ㉡찰필 등
주어진 용어									
선정 도구	목탄, 마카펜								
목탄	1.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든 숯 2. 입자가 거칠지만 연필 등장 이전까지 스케치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음 [부재료] • ㉠퍼티, ㉡찰필 등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3	강좌정보	3-5월 단과강의
--------------	----	------	-----------

3.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2점]



(가) 김정희, <인천안목길상여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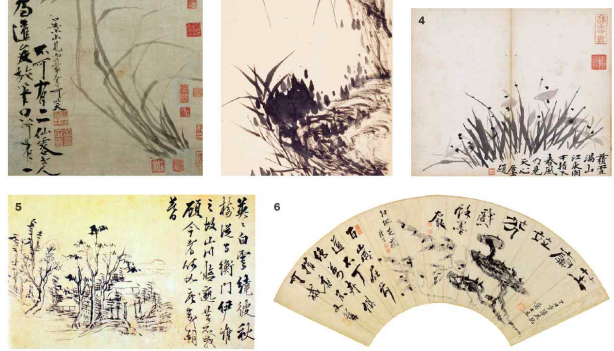
추사 김정희(金正喜)는 묵란(墨蘭)을 잘 치기 위해서는 화법이 아닌 서법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였다. 추사가 묵란에서 추구한 조형미는 고졸한 미감이었으므로 (㉠)을/를 쓰는 법으로 난을 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가)의 작품 상단에 쓰인 '인천안목길상여의(人天眼目吉祥如意)'의 서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예와 사군자에 있어 운필(運筆)할 때에는 팔꿈치를 들어 팔이 책상의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하는 현완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붓을 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나)와 같이 엄지와 검지, 중지로 붓대를 쥐는 (㉡)을/를 사용하면 안정된 필력을 얻을 수 있다.

<한국미술사>

추사의 시서화 일치론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이론 2권 177쪽



1 김정희, <부작란도>, 조선 후기 우측 구석에서부터 솟아난 난초는 담묵으로 그려져 연약해 보이면서도 강인하고, 굴곡지면서도 곧게 뻗어있다. 여백에는 김정희의 제시가 가칠게 쓰여 있는데 자신이 그린 난초를 '불이선(不二線)'에 비유하고 있다. 불이선이란 돌이킬 수 없는 참된 선을 뜻하는 것으로,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로 난을 그렸으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작화 태도로 문인 화가 김정희의 서화 일치 사상과 이상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

초서의 필법 - 목희의 차원

예서의 필법 - 고법으로 그리는 것

<표현>

붓의 집필법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이론 2권 265쪽



쌍구법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4	강좌정보	3-5월 단과강의
<p>4.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2점]</p> <p>[별첨 컬러 도판 참고]</p>  <p>(가) <그리스도 성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20px;"> <p>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옛 이름에서 유래한 (㉠) 미술은 기원후 330년경부터 1453년까지 동방 그리스도교 사회에서 성행하였다. (㉡) 미술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라는 뜻의 도상인 (㉢)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전지전능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은/는 (가)와 같이 왼손에 책을 들고 오른손으로 성호를 긋는 모습의 흉상이 일반적이다. 성부와 성자를 동시에 연상시키는 이 형상은 패널화나 모자이크화로 주로 그려졌다.</p> </div>		 <p>1 <예수 성상>, 템페라, 700년경 2 <황아(마리) 성모>, 템페라, 12세기 초 3 <성모 성전 봉헌>, 템페라, 15세기</p> <p>선동 양식(Agitated Style) 몬테카울레(Monte Cassino)라고도 불리는 비잔틴의 성상과 제각 양식. 육촌 당대 위 왕을 반영한 작품을 일컫는다. 비잔틴 중기에는 표현성 짙은 성상화가, 후기에는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인체를 담아 낸 성상화가 그려졌는데 이 두 가지 경향을 한데 아우른다.</p> <p>상자에 보기 템페라는 달걀노른자와 발물 등을 혼합 채로 쓴 투명 그림물감, 혹은 그것으로 그린 그림을 가리킨다. 템페라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본다.</p> <p>비잔틴 시기의 성상화는 시기에 따라 여러 번 변모했다. 초기에는 산 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 벽화처럼 안에 비례를 고려해 자연주의적으로 그려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형상의 보편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황아(마리) 성모>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특히 예수가 항상 이 고개를 다린 동안 길 건너나 땅에 표현하는 단색을 직접적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엿보인다.</p> <p><서양미술사>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이론 1권 26p 동일도판</p> <p>비잔틴시기 성상화의 유행과 선동양식(몬레알레) 전능하신 그리스도, 성모자상 도상의 유행, 양식화의 진행 설명</p>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5

김 교사: 저는 다음 수업에서 유화 재료와 표현 기법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 안료에 비해 염료는 회화 물감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을 다루었어요. 물감은 색채 가루인 안료와 미디엄으로 이루어져 있죠. 유화 물감은 안료 자체로는 접착력이 없으므로 바닷재와의 접착력을 높여 주는 마타역이 기름을 안료와 섞어 만들지요.

이 교사: 그래서 유화 수업에서 ㉡ 팻 오버 린(fat over lean)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김 교사: 맞습니다. 팻 오버 린을 적용하는 유화 물감이 마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요즘은 물감 사용이 편리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화가들이 물감을 직접 만들어야 했고,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서 물감 사용이 불편했습니다.

이 교사: 네, 맞아요. 영국의 산업 혁명기에 ㉢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물감의 사용이 쉬워졌습니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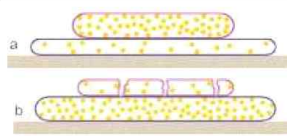
- 밑줄 친 ㉠의 이유를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방법을 서술하고, 밑줄 친 ㉢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영향을 준 (가)의 작품이 속한 화파의 명칭을 쓸 것.

강좌정보

6-7월 남미술의 테마파크

<표현·전통표현 점검 포인트>

팻 오버 린 원칙 출제 예상 후 적중

3권 227-243	회화 용구와 재료	
유화 제작 시 유의점 p.238	<input type="checkbox"/> ‘팻 오버 린’ 원칙을 지킬 것: 팻(fat)은 오일의 함유량이 높은 물감을 의미하고, 린(lean)은 희석액으로 희석한 오일 함유량이 낮은 물감을 뜻합니다. 유화에서 ‘팻 오버 린’(fat over lean)은 그림의 a처럼 위에 겹쳐 칠하는 물감일수록 오일 함량이 높아야 한다는 것으로 유화의 기본적인 채색 원칙이다. <input type="checkbox"/> 흰색 물감 선택의 중요성: 징크 화이트보다는 티타늄 화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징크 화이트의 경우 건조가 더디고 불투명도가 티타늄 화이트보다 못해 다른 색을 덮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티타늄 화이트는 가장 하얗고 불투명도가 높아 다른 색을 효과적으로 덮을 수 있다.	 <p>물감이 칠해진 단면을 표현한 것으로 노란색 점이 조밀할수록 오일 함유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p>

회화용구	<input type="checkbox"/> 바인더, 전색제, 용제의 개념 <input type="checkbox"/> 바니시의 용도 <input type="checkbox"/> 수채화와 과슈의 차이점 <input type="checkbox"/> 템페라의 특성(유화 이전까지 템페라가 사용된 이유=템페라의 장점), <input type="checkbox"/> 유화 ·팻 오버 린 원칙 ·징크 화이트vs 티타늄 화이트 ·박락 현상, 황변현상, 화면 수축 현상 →보조제를 사용한 보존법 <input type="checkbox"/> 아크릴 →리타더의 효과(단답, 서답)
------	---

팻 오버 린 하지 않았을 때, 물감이 굳는 과정에서 박락, 깨짐 등의 현상 발생을 설명
 튜브 물감의 장점을 외광파, 인상주의와 연계하여 테마파크, 토티아보기에서 설명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6	강좌정보	3-5월 단과강의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169 416 456 864"> </div> <div data-bbox="472 416 759 864">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data-bbox="209 869 414 898">(가) 장 아르프(J. Arp)</div> <div data-bbox="563 869 670 898">(나) 김종영</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가)와 (나)의 작품은 자연성에 바탕을 둔 20세기 추상 조각이다. 장 아르프는 “응축과 경화, 응고와 농화를 거쳐 성장하는 자연의 과정”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가)는 이러한 ㉠ <u>자연의 성장과 변성을 조형화한 추상 조각</u>으로, ㉡ <u>식물과 동물의 형상에 근거한 유기체적 형태</u>를 지니고 있다. 김종영은 자연 재료의 특성을 살려 “표현은 단순하게, 내용은 풍부하게”라는 신념을 담아 내고자 하였다. (나)는 그의 조각의 핵심 사상인 ‘(㉢)의 미’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text-align: center;"> <p>—<작성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밑줄 친 ㉠의 예술적 기반이 되는 개념을 쓸 것. ○ 밑줄 친 ㉡을 지칭하는 용어를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할 것. </div>		<p><현대미술사> 남들은 모르는 미술전공이론 1권 135p</p> <p>유기적 추상 경향 (Organic Abstraction)</p> <p>자동기술법을 주로 활용해 를 추상적으로 그려 내는 초 한 경향이다. 대표 작가로 장 드레 마송, 호안 미로 등이 있음</p> <p>두산백과 설명: 이 동안에 회화에서 부조(浮彫)를 거쳐 환조(丸彫)에 다다른 그의 작품은 극도로 단순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초현실주의와 추상주의의 중간인 유기적 추상으로 탄력이 넘치는 근원적인 인간의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 생명형상 (바이탈 폼)</p> <p>한스 아르프, 헨리 무어 등 생기론의 영향을 받은 추상조각을 유기적 추상 경향으로 묶어 설명</p> <p>추가자료 17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p>[파피에 데시레] 퐁피두미술관</p> </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iers déchires • 찢은 색지에 의한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p>[바이오모픽] 세계미술용어사전</p> </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형태적 혹은 사 한 추상 미술을 Edward Lucie-Smith 한 추상 형태들을 티브를 사용하는 등 • 1930년대에는 기하 인간이나 생명을 지 러한 생물형태주의. </td> </tr> </table>	<p>[파피에 데시레] 퐁피두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iers déchires • 찢은 색지에 의한 	<p>[바이오모픽] 세계미술용어사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형태적 혹은 사 한 추상 미술을 Edward Lucie-Smith 한 추상 형태들을 티브를 사용하는 등 • 1930년대에는 기하 인간이나 생명을 지 러한 생물형태주의.
<p>[파피에 데시레] 퐁피두미술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iers déchires • 찢은 색지에 의한 						
<p>[바이오모픽] 세계미술용어사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형태적 혹은 사 한 추상 미술을 Edward Lucie-Smith 한 추상 형태들을 티브를 사용하는 등 • 1930년대에는 기하 인간이나 생명을 지 러한 생물형태주의. 						

25학년도 중등미술임용 A7



(가) 조석진, <어락도>, 1901년



(나) 안중식, <백악산효도>, 1915년

조석진(趙錫鎭)과 안중식(安中植)은 장승업에게 그림을 배웠고, 고종 황제의 서얼 제자에 불어났으며, 영선사(靈仙寺)의 제도(執事)로 선임되어 궁중 친신에 1년 머물면서 경문을 닦았다. 이들은 서화미술회강습소에서 이상범, 노수현, 박승두 등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1908년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미술 단체인 (사) 동양실업회(東洋實業會)를 창립하여 조선 말기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한국화단 형성에 기여하였다. (가)와 (나)의 작품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화법에서 근대화를 모색하던 조석진과 안중식의 화풍을 알 수 있다.

<작성 방법>

- 중요 인의 도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가)의 작품에서 서양화 기법의 영향을 찾아 서술할 것.
- (나)의 작품에서 작가의 사색(色)과 한 의(意)의 그 의미를 설명하는 소재를 적어 서술할 것.

강좌정보 9-10월 모의고사

<1주차 A형 12번>

근현대 미술사 조석진·안중식 설명

12.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박희 <조운도>



(나) 안중식 <백악산효도>

(가)는 북송대 박희의 작품이고, (나)는 대한제국기 안중식의 그림이다. 두 작품은 각각 혁신적인 공간 표현의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작품들인데, (가)에서는 조상 효과를 주기 위해 단순히 비어있는 곳이 아닌 구름과 안개를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박희는 이외에도 ㉡삼원법을 이용한다면 산전을 숨어 살펴보고 그림 한 폭에 그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초기에는 박희의 화풍에 근거한 방식이 전래되어 안견과 양생은 같은 화가들이 그의 법을 따라 그렸지만 조선 후기부터 걸출된 ㉢산악화법에 의해 공간 표현이 달라진다. (나) 작품에는 그런 특징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산의 모습도 비교적 현실적으로 그려져, 같은 바위산임에도 (가)에서 ㉣산세를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이 표현하는 방법과는 다른 시각적 사실성이 나타나고 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의 이것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
- 밑줄 친 ㉡의 삼원법의 활용 방식을 산점투시(散點透視)에 근거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이 (나)에 반영된 특징을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문법의 명칭을 쓸 것.

4주차 A8	4	㉠	‘조선 향토/ 조선의 민속 산천과 그 일체의 것이 엑조티시즘’
		㉡	비애미: 한(바람에 흔들 비판점: 식도 미술을 지배 비애라는 건
		㉢	서화협회

두 사람의 서화협회 개설 참여, 장승업의 제자, 서양화법의 도입에 따른 작품에 적용된 사례 안중식이 참여한 고종초상과 백악산효도는 각각 2점씩 존재한다는 점,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

<4주차 A형 8번>

문제 정답으로 조선향토색과 ‘서화협회’ 한번 더 출제 > 적용

남정덕 선생님의 더 많은 합격 비법이 궁금하다면?

2026학년도 희소 티처스 설명회에서
확인하세요!



교원 임용 1위,
우리는 최초를 만듭니다.

 **KG** 에듀원 교원임용 희소/쌤플러스